

운명 소비행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운명관의 내용과 구조를 중심으로

김 철 민[†]
광주대학교 언론광고학부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운명 소비행동에 내재한 운명관의 내용과 구조를 이론적, 경험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동양 고전과 관련 문헌들을 고찰한 결과, 한국인의 운명관은 정명관, 역명관, 조명관으로 대분될 수 있었다. 한편 운명관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기존의 심리학적 개념인 통제소재와 관계를 살펴보았다. 운명관의 내용과 구조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문헌 고찰 결과에 바탕하여 질문 문항(운명관 : 55문항, 통제소재 : 21문항)을 구성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정명관, 역명관, 조명관 외에 유전 결정관으로 명명할 수 있는 새로운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통제소재와 운명관의 상관 분석을 통해 운명관의 내용을 한층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운명 소비행동(소비경험과 소비의도)은 운명관 중 역명관으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었다.

주제어 : 운명관, 운명소비행동, 운명론, 통제소재

[†] 교신저자 : 김철민, kimcm@hosim.kwangju.ac.kr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확실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자신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노력한다해도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문제들에 직면한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적극적인 대처나 관망, 회피 또는 포기 등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흔히 이런 종류의 의사결정을 할 때 참조 정보로서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를 알고자 한다. 특히 이사, 진학, 사업, 입사, 결혼 등 인생 전환기에서 다양한 문제에 맞닥뜨리면 점복가나 역술인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이런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가끔 막연히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한다. 매년 연초가 되면 의례적으로 토정비결을 본다. 일간 신문, 각종 잡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간 운세, 오늘의 운세를 살펴봐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래(포괄적으로 운명)를 알고자 하는 욕구와 역리 점복 이용행동(이하 운명 소비행동이라 명명함)은 여러 조사 자료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1997년 서울대 사회발전 연구소에서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약 48%가 역술인에게 사주를, 42%가 점복가에게 점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강정환, 1998에서 재인용). 한국 사람 가운데 거의 절반 정도가 사주나 점을 본 적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 현재 한국에서 역술/점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4만명 정도이고 추산되지 않은 사람까지 합하면 약 10만 여명 정도이며, 매일 약 백만명 정도가 사주와 점을 본다고 한다(김홍철, 1995). 이는 역리 점복 이용료(한 사람당 평균 2-3만원)를 감안한다면 최소 연 10조원 이상의 시장 규모라 할 수 있다.

이렇듯 현재 우리 사회에서 운명 소비행동은 매우 일상적이며 보편적인 서비스 소비행동이다.

그럼에도 소비자 심리학 영역에서 운명 소비행동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연구는 없다. 운명 소비행동을 하나의 연구 주제로 다루지 않은 것이다. 소비자 심리학 뿐아니라 심리학 전반에서도 이를 주제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역술인이나 점복가와 면접 결과를 살펴보면, 운명 소비자들은 점복가나 역술인에게 자신이나 가족의 운명을 알아보면서 인생사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한다(김태곤 외, 1995). 우리나라에서 점복가나 역술인들은 점복과 역학을 통한 운명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상담 심리학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운명 소비행동에 대한 연구는 한국인의 문제 해결 과정이나 환경 적응/통제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다. 한편 여러 분야의 학자들은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이나 가치관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숙명 의식이나 운명론적 사고를 언급하곤 한다(이규태, 1973; 윤대림, 1977; 김태길, 1982; 김철민, 1996 등). 그런데 정작 심리학 분야에서는 숙명(운명)론적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조에 대한 연구를 찾기 어렵다. 사실 운명론적 사고는 한국 같은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 뿐아니라 운명 소비행동이나 문제 해결/대처 방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한국인의 과반수 정도가 일상 생활에서 흔히 하는 행동을 심리학에서 다루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먼저 운명 소비행동을 단순히 전근대적이며 비과학적인 미신 추구 행동으로 바라보는 일반론적 시각을 들 수 있다. 미신적 사고나 행동은 과학적 연구의 탐구 대상이 아닌 것이다. 둘째는 개인이 힘든 일에 부딪혔을 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대처하는 것을 합리적이며 타당하게 여기는 관점을 들 수 있다. 개인이 난관을 만나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바람직

하게 여기는 견해인 것이다. 이런 견해를 취하게 되면 운명 소비행동은 당연한 문제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소극적, 수동적인 현실 회피행동인 것이다. 통제 소재(locus of control)에 관한 연구(Rotter, 1966; 차재호, 공정자, 김철수, 1973), 귀인 이론(Heider, 1958; Kelley, 1973; 한규석, 1995에서 재인용)과 내적 동기 이론(De Charms, 1968; 한덕웅, 1987 참조) 등은 이런 관점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개인이 문제에 당면하여 자신이 바라는 대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격이나 능력, 태도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통제 소재 연구에서는 개인의 주변 환경에 대한 능동적이며 직접적인 통제(내적 통제)를 바람직한 행동방식으로 간주한다.

이런 연구 경향에도 불구하고 운명 소비행동과 관련한 소재를 대상으로한 심리학적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 무속에 대한 연구(오수성, 1995)나 사주를 통한 다면적 인성진단을 위한 연구(신상춘, 1991)가 있다. 이 연구들은 한국인의 보편적인 심성을 이해하고 운명 서비스 제공 수준의 심리학적 이용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연구들에서는 운명 소비행동의 주체인 개인보다는 운명 서비스 제공자나 운명을 알아내는 도구인 무속과 사주 자체(민속지학적 기술,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른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진 운명 소비현상 관련 연구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서영대, 1994; 김태곤 외, 1995; 김석진, 1995; 이정복, 1996 등). 이러한 연구들만으로는 한국인의 보편적인 소비행동 가운데 하나이며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운명 소비현상을 포괄적으로 탐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개인의 입장에서 운명 소비행동에 내재한 심리적 이유와 결과 반응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할 때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일상 소비행동 중 하나이며 문제해결/대처 방식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운명 소비행동에 내재한 운명에 대한 신념인 운명관의 내용과 구조를 이론적,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운명 소비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기존의 심리학적 구성개념인 통제 소재와 운명관의 관계를 살펴보고, 운명관과 통제 소재가 운명 소비행동의 설명 변수로서 유용한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 고찰과 연구 문제

우리는 왜 자신이나 가족의 운명을 알고자 하는가? 또 운명을 알기 위해 역술인이나 점복가를 찾는 운명 소비행동을 왜 하는가? 운명을 알고자 하는 욕구나 소비행동의 이면에는 운명에 대한 기본 가정(basic assumption)이 있다. 현재 이 순간에 자신이나 가족의 미래 운명을 알고자 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자신이나 가족의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결정론적 사고 방식에 기인한다. 우리는 이를 흔히 숙명론적, 운명론적 사고라 한다. 사실 운명에 대한 이러한 사고 방식은 운명 소비행동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 언어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사주팔자 탓을 한다(예 : 팔자가 기구하여 어렵게 산다거나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 자기 먹을 것은 갖고 태어난다, 인명은 재천이다 등).

운명론적 사고는 인간이 운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인간과 운명의 역학관계에 대한 운명관의 한 측면일 뿐이다. 그럼에도 현대 한국의 사회과학 전반에서 한국인의 운명관에 대해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보니, 한국인의 운명관은 곧 숙명론이라는 등식이 통용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현재 한국인의 운명관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과거 諸子百家의 문헌과 조선

조 성리학자들의 문헌을 참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헌들에 담긴 운명관은 과거에서 현대로 이어진 정신적 유산이고, 지금도 많이 읽히며 현대인의 운명관에 뼈대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인간의 운명 관련 연구들을 참조한다면(최영진, 1990; 김석진, 1995; 이정복, 1996; 정재민, 1998), 수천년 전부터 지속된 운명관에 대한 논란 속에서 이미 정립된 운명관의 전형을 발견할 수 있다.

운명관의 한 측면인 운명론적 사고의 기원은 유학의 정명론(定命論)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유학의 사서 삼경 곳곳에서 인간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주장들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書經>의 大誥편(소자가 감히 상제의 명을 폐하지 못하노니...오호라, 하늘의 밝음이 두려운 것은 우리의 크고 큰 티를 도우심이라)과 <論語>의 顏淵편(...자하가 말하기를 死生은 명에 달려있고, 富貴는 하늘에 달려 있다...), 雍也편(백우가 병에 걸렸다. 공자는 병문안을 가서... 가망이 없는가 보다. 運命인가 보다. 이런 사람이 병에 걸리다니), 憲問편(...도가 시행되는 것도 命이고, 도가 시행되지 않는 것도 命이다...), <孟子>의 梁惠王 下篇(...맹자께서 말씀하시길 길을 가는 것은 혹은 누가 시켜서이며 멈춤은 혹은 저지해서이다. 그러나 行止는 사람이 능히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노나라 임금을 만나지 못함은 天運이니, 장씨의 아들이 어찌 나로 하여금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列子>의 力命편에서도 力(인력을 뜻함)과 命(천명을 뜻함)의 문답을 통해 夭壽窮達과 貧富貴賤은 인력보다 천명에 의해 좌우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명론은 비단 유학의 경전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선 초기의 학자이자 생육신중 한사람인 南孝溫의 <命論>에서도 정명론을 발견

할 수 있다. 그는 명론에서 “지극히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는 것을 天이라 하고, 화평하여 다함이 없는 것을 命이라 한다.... 그러므로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天이다. 성스러움 또한 命이요 어리석음 또한 命이다...귀한 運命을 타고난 사람은 귀하게 되고 천한 運命을 타고난 사람은 천하게 된다. 부유한 運命을 타고난 사람은 부유하게 되고, 빈곤한 運命을 타고난 사람은 빈곤하게 된다”고 적고 있다. 남효온은 국가의 흥망성쇠는 물론 개인의 賢愚, 興亡, 死生, 貧富, 貴賤이 모두 명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물론 여러 문헌에 나타난 정명론은 운명을 주재하는 주체(신, 하늘, 천운, 자연의 법칙 등)를 누구로 보느냐, 삶의 전반에서 정해진 영역(사소한 일상사, 중대한 인생사)을 어디까지라고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것은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어서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믿음(운명론적 사고)이다. 운명론적 사고는 일상 현실 문제에 당면한 개인의 행동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정해진 운명에 순응해야 하는가? 운명에 따르려면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여기에 정명론과 운명 소비행동의 연결 고리가 있다.

자신의 정해진 운명을 알고 난 후에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정해진 운명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조용히 수용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정명론은 다시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운명론을 오로지 무조건적 운명 순응이나 체념적 사고와 결부시키는 것은 정명론의 극단만을 강조하는 논리이다. 극단적 정명론은 흔히 한국인을 폄하하기 위한 논거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정명론 관련 문헌(<論語>의 顏淵, 述而편, <孟子>의 盡心편 참조)에서는 정해진 운명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개인의 노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긍정적인 운명(귀, 부, 장수 등)이라면 천명을 온전히 보존하여 인위로서 해치지 말고, 그에 합당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것이다(盡人事待天命). 또 부정적인 운명(천, 빈, 요절 등)이라면 천명을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수신하며 명을 기다림이 옳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 하더라도 인위적 노력으로 운명의 일부를 바꿀 수 있다는 관점이 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정명론을 인정하되 개인의 노력을 통해 긍정적 운명은 더욱 긍정적으로, 부정적 운명은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易命, 또는 變命論이 그것이다. 예컨대 이런 관점은 <論語>의 先秦편(...天命이 아님에도 재물을 불린것은 憶惻이 잘 적중했기 때문이다)이나 <孟子>의 盡心편(...命 아님이 없으니 定命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까닭에 命을 아는 자는 위험한 담장 아래 서지 않는다. 그 도를 다하고 죽는자는 定命이요, 질곡으로 죽는 자는 定命이 아니다..)에서 엿볼 수 있다. 또 李珣의 <壽夭策>에서도 역명론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稟氣와 養氣라는 개념을 내세워 “氣가 비록 박해도 잘 培養한다면 어찌 배양의 공이 없겠는가. 기가 비록 후할지라도 진실로 자신이 자기 몸을 해친다면 어찌 손상이 없겠는가”고 주장하였다. 이는 사람이 타고난 것(품기)을 어떻게 보존하고 배양하느냐(양기)에 따라 장수와 요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인 것이다.

이러한 역명론적 사고는 운명을 알고 난 후의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운명 소비자들 대다수는 역술인이나 점복가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알고나서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책을 강구한다. 부적을 구매하고, 굿을 하며, 액운을 막고 행운을 만들기 위해 택일하고, 좋은 묘자리를 고른다. 수많은 기복행

동의 이면에는 역명관이 상당 부분 깃들여 있다. 기복행동은 운명을 정하는 대상에 대한 소원 행동이다. 물론 역명관이 모든 기복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명관이 기복행동으로 연결되지만 모든 기복행동의 이면에 역명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에서 개인이 운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개인이 자신과 운명의 역학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명과 역명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정해진 운명을 부정하는 관점이다. 즉 운명은 누군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造命論이다. 조명관의 기원은 유학과는 다른 墨家나 佛敎의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墨子>를 들 수 있다. 물론 목자가 조명 자체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는 운명이 정해진다는 유가의 관점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非命편과 非儒편에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非儒편에서 그는 “억지로 運命이 있다고 주장하며 말하기를 ‘수요와 빈부, 안위와 치란이 본래 天命에 있기에 빼거나 더할 수 없다. 궁달과 상벌, 행과 불행이 정해진 것이어서 사람의 지혜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한다. 여러 관리들이 이말을 듣게 되면 자기의 직책에 태만하게 되고, ... 백성들이 농사를 허술하게 하여 가난해진다. ... 이것은 천하의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다”고 언급하였다. 정명에 대한 부정이 아닌 조명관은 李灝의 <星湖僊說>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익은 성호사설의 여러 곳에서 인간과 운명의 역학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造命, 怨天尤人, 定命, 人鬼死生편). 그는 造命편(... 造命이란 시세를 만나 人力이 참여하는 것이다. ... 만약 오로지 天命만 말한다면, 착한 일도 상줄 것이 없고 악한 일도 벌줄 것이 없다. 임금과 재상만이 運命을 만드는 것이 아니요, 士

庶人도 또한 그러하다. ...)에서 天命, 星命, 造命을 각각 서술하고 조명의 타당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佛家에서 주장하는 인과응보나 業설도 조명관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인과응보나 업설은 현재 결과는 과거에 이미 결정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 인간의 노력에 따라 미래 운명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명관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제자백가와 조선 성리학자들의 문헌에 바탕하여 운명관을 정명관, 역명관, 조명관의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물론 이런 문헌에서 철학적 주장으로 나타난 운명론이 현재 한국인의 운명관에 그대로 투영되었을 거라는 추정에는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있다. 위에서 정리한 세 가지 운명관의 유형에는 각 시대의 삶의 환경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명관을 정명, 역명, 조명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한 개념 규정에 근거하여 문항을 구성한 후, 현재 한국인에게 내재화되어 있는 운명관을 실증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제 위에서 제시한 운명관과 연관이 있으며, 운명 소비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심리학적 개념들을 살펴보자. 운명관이 개인의 인간과 운명의 역학관계에 대한 신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명칭은 다르지만 심리학에서는 인간과 환경간 힘의 역학에 대한 지각이나 사고를 다루었다. 유전과 학습(nature와 nurture)의 논란, 즉 타고 태어나느냐, 개인의 노력으로 변화시키느냐에 관한 논란도 이와 관련된다.

인간과 주변 환경의 역학관계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Rotter(1966)의 통제 소재에 관한 연구이다. 그는 인간에게는 자신과 주변 환경 중 어느 쪽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지각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따라 사람의 성격 유형을 구분하고자 했다. 그는 개인과 주변

환경의 역학관계를 통제(control)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개인의 힘보다 환경의 힘이 강한 것으로 지각하는 사람을 외적 통제자로, 그 반대를 내적 통제자로 구분하였다. 또 귀인 이론도 통제에 관한 신념인 통제감과 관련이 있다(한규석, 1995). 귀인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나 타인의 행위 원인을 자신과 주변환경 중 어느 쪽에 있는지를 판단하려고 한다. 개인이 행위 원인을 파악하는 이유는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예측력과 통제감을 획득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통제 소재나 통제감은 운명관과 관련이 있다. 사건이나 행동이 운명, 행운, 우연, 타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지각하는 외적 통제는 운명관 중 정명관과 관련이 있고, 내적 통제는 조명관과 관련이 있다. 어떤 사상을 유발하는 힘의 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에서 운명관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통제 소재와 운명관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 특히 외적 통제와 정명관의 차이이다. 외적 통제는 어떤 사상을 유발하는 힘이 외부 환경에 있다는 지각을 강조한다. 그 힘의 작용 규칙은 무선적(random)이다. 반면 정명관에서는 그 힘을 좌우하는 주체나 규칙까지를 강조한다. 이런 관점은 외적 통제자와 정명관 수용자의 일상사에 대한 대처 방식으로 이어진다. 외적 통제자는 정신적 긴장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무기력이나 무력감을 갖게 되며, 부정적 자아관을 지니고 자신감/자기 효능감의 상실, 사회적 성취의욕의 상실을 경험한다. 또 사회적 영향력이나 대인관계에서 소극성을 띠 가능성이 높다. 정명관 수용자는 정해진 운명(외부의 힘)을 알고자 한다. 알고 나면 체념이나 포기, 겸허한 수용으로 이어진다. 이 때 체념이나 포기로 이어지는 극단적 정명관은 외적 통제와 일맥상통한다.

또 운명을 알고 겸허하게 수용하는 정명관이 반영된 통제방식은 최상진(1995)의 연구에서 발견

할 수 있다. 최상진은 역경의 현실을 그대로 둔 채 자기 자신을 역경 상황에 맞춰 나감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간접적 역경 순응 방법 또는 이차적 통제(현실 초월적 통제, 심리방어적 통제, 타인 지향적 통제)라 분류하였다. 그는 서구 사회와 달리 한국사회에서는 역경에 직접 대처하는 일차적 통제 못지 않게 이차적 통제가 바람직한 사회규범으로 내재화하였고, 한국인의 적응력을 높이는 적응기제로 발달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이차적 통제는 정명관에 바탕한 적응기제라 할 수 있다(한덕웅, 1994 참조). 그런데 한국인에게 내재해 있는 또 다른 간접적 문제해결 방식으로 역명관에 바탕한 통제방식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이 당면한 역경을 좌우하는 힘의 주체를 움직이게 하려는 통제 방식이다.

결국 통제 소재나 통제감에 관한 연구에서처럼 인간과 주변 환경간 힘의 균형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반영한 내적 통제/외적 통제, 일차적 통제/이차적 통제의 개념은 이론적으로 운명관(정명관, 역명관, 조명관)과 정확하게 대응시키기 어렵다. 특히 역명관과 대응시킬 수 있는 개념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통제 소재나 통제감은 사상을 유발하는 힘의 역학관계에 대한 지각이라는 점에서 운명관과 관련한 심리학적 개념이지만 운명 소비행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데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개인과 주변 환경의 역학관계에서 힘의 작용 방향에 대한 지각이란 측면에서 통제 소재나 통제감과 운명관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운명관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둘 간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에 바탕하여 본 연구자는 실증적으로 검토해야할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 한국인에게 내재화된 운명관의

구조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 운명관과 통제 소재는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3 : 운명관과 통제 소재는 운명 소비행동의 설명변수로서 유용한가?

위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들은 이론적 논의에 바탕하여 구성된 운명관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경험타당화를 위한 것이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한국인의 운명관에 대한 구성타당도를, 두 번째 연구문제는 변별타당도를, 세 번째 연구문제는 예측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설정하였다.

방 법

질문 문항 구성

정명관: 운명관 중 정명관은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또는 미리 정해져 있어서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인 문항들을 구성하기 위해 가장 포괄적인 단어들은 운명, 운, 팔자, 복 등을, 좀 더 구체적인 단어들은 한 해 운세, 오늘의 운세, 꿈, 점, 사주, 관상, 손금 등을 이용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정해진 운명의 영역들 즉, 출생, 질병, 이사, 택일, 혼사(결혼/궁합), 배우자, 자녀, 입사, 직업, 작명, 진학, 사업, 수명(장수/요절), 원만한 인간 관계 등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유전과 관련한 문항들을 구성하였다(총 36문항).

역명관: 역명관은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지만 인위적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명관: 조명관은 ‘운명은 정해지지 않고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런데 구체적인 문항으로 표현되었을 때, 조명관에 해당하는 문항과 역명관에 해당하는 문항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컨대, 좋은 날에 이사하면 액운을 막을 수 있다는 문항이 그렇다. 이 문항은 택일하지 않으면 불운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점, 택일을 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명관에 해당하는 문항이다. 모든 문항은 중간값을 없앤 Likert형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통계 소재: Rotter가 제작한 내외 통제 척도(I-E Scale) 29개 문항 중, 차재호 등(1973)이 번역, 수정하여 표준화한 21문항(6문항은 허구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운명 소비행동: 사주, 점, 관상, 궁합 등에 대한 이용 경험 빈도와 향후 소비 의도를 두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조사 대상자

조사 대상자는 00광역시 소재 만 18세 이상의 남/여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추출 방법으로는 층화 할당 표집(stratified quota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즉 구(00광역시의 5개 구)와 성별/결혼 여부를 유층(strata)으로 설정하여, 먼저 각 구에 100명씩을 할당한 후, 각 구안에서 성별과 결혼 여부에 따른 4개의 셀에 25명씩을 할당하여 표집하였다. 미혼 남녀는 주로 3개 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표집하였다. 기혼 남녀는 각 구에 할당한 인원(50명)을 면접원인 00대학생들이 편의적으로 표집하여 면접하도록 하였다. 실사 과정에서 상당수의 질문지가 회수되지 않았다(15%).

특히 기혼 남녀인 조사대상자들의 회수율이 낮았다. 회수한 질문지에 대한 검색 결과, 기혼 남녀들은 몇 개의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최종적으로 35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 과

응답자들의 성별/결혼 유무별 분포는 <표 1>과 같았다. 응답자들의 평균 연령은 28세였다.

응답자들의 운명 소비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67.3%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나 가족의 운명을 알아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38%는 역학자나 점술가를 통해 운명 소비를 하였고, 42%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운명을 알아보았다고 응답하였다. 또 남성(63%)보다는 여성(71.4%)이, 미혼자(67%)보다는 기혼자(83%)가 운명 소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명관의 구조(연구 문제 1)

응답자들에게 내재화된 운명관의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주축 요인 분해(principal axis factoring)를 통한 기초 요인 분석을 하였고, 고유치(eigenvalue)와 각 고유치의 설명 분산을 고려하여 요인 수를 4개로 결정하였다. 또 각 요인의 해석을 위해 사각 회전(oblique rotation 중 direct oblimin)을 하였다. 사각

표 1. 성별/결혼 유무별 응답자 분포

	남	여	전체
미혼	115(32.7%)	113(32.1%)	228(64.8%)
기혼	55(15.6%)	69(19.6%)	124(35.2%)
전체	170(48.3%)	182(51.7%)	352(100%)

회전을 실시한 이유는 이론적으로 설정한 운명관의 세 요소가 상호독립적이라고 가정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특히 운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뀔 수 없다는 믿음인 정명관과 운명은 만들어 간다는 믿음인 조명관은 논리적으로 부적 관계가 있다. 또 역명관도 정명관을 바탕으로 하나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 관계가 있다. 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의 <부록 1>과 같다.

부록 1에 제시한 요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요인적재값이 .4 이상이고 다른 요인과 차별화), 요인 1은 ‘역명관’이라 명명할 수 있다. 요인 2는 ‘조명관’, 요인 3은 ‘유전결정관’, 요인 4는 ‘정명관’이라 명명할 수 있다. 요인분석 결과는 연구자가 이론적으로 운명관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문항을 구성했던 것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먼저 연구자는 유전에 해당하는 요소들(키, 용모, 지능, 병 등)을 정명관(또는 역명관)으로 구분하고 문항으로 제작하였다. 유전에 의해 결정되는 요소들도 분명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다는 측면에서 정명관에 해당한다. 물론 후천적이며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역명관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응답자들은 유전에 의해 결정되는 운명관(유전결정관)을 정명관이나 역명관과 다른 하나의 독립적인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아마 응답자들이 운명을 정하는 주체(신이나 하늘과 같은 초자연적 존재/법칙)에 대한 해석이나 정해지는 운명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유전 결정관과 정명관(또는 역명관)을 구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다음은 역명관과 조명관의 구분에 관한 것이다. 연구자는 문항을 구성할 때 정명을 믿느냐 여부, 정해진 운명을 아는 지 여부와 역명 노력의 능동성 여부에 따라 역명관과 조명관을 구분하였다. 예컨대 ‘부적은 행운을 만들어 낸다’는 정해진 운명을 아느냐와 관계없이 능동적으로 자신이나 가족의 행운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조명관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분류하였다. 또 ‘부적을 지니면 다가올 액운을 막을 수 있다’는 정해져서 다가오는 액운을 알고 수동적이지만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역명관에 해당하는 문항으로 구분한 것이다. 그런데 응답자들은 이와 관계없이 부적이나 택일, 명당, 굿 등을 통해 정해져 있든 그렇지 않든, 미래를 바꾸거나 더 긍정적으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역명관으로 보고 있었다. 이 결과에 바탕 한다면, 운명을 주재하는 주체(신, 귀신, 조상신, 역리, 자연 법칙 등)에게 기원하는 한국인의 모든 기복행동의 이면에는 역명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제시한 요인들간 상관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정명관은 역명관과 부적 상관, 조명관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자의 예상과 어긋나는 결과이다. 그렇지만 이 결과는 한국인에게 정해지는 운명의 영역이나 범위와 만들 수 있는 운명 영역이나 범

표 2. 요인간 상관행렬

요인	역명관	조명관	유전결정관	정명관
역명관	1.000	-.160	.207	-.593
조명관	-.160	1.000	-.002	.162
유전결정관	.207	-.002	1.000	-.278
정명관	-.593	.162	-.278	1.000

위에 대한 믿음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유전결정관은 역명관과 정적 상관, 정명관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조명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위에서 설명했듯이 한국인에게 유전적 요인은 설명가능하며 통제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명관과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운명관과 통제 소재의 관계(연구문제 2)

운명관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네 가지 운명관과 통제 소재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네 가지 운명관 점수는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 점수를 더하여 지수화하였고, 통제 소재 점수는 15 문항을 더하여 지수화하였다(0-15점, 값이 클수록 내적 통제). 두 개념간 상관관계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그런데 네 가지 운명관간 상관이 있었기 때문에 부분 상관계수(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표 3>을 참조하면, 통제 소재는 정명관과 유

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조명관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외적 통제 소재는 정명관과 관련이 있었고, 내적 통제 소재는 조명관과 관련이 있었다. 이론 고찰 부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운명관과 통제 소재는 개인과 주변 환경간 힘의 작용 방향에 대해서만 공통 분모가 있을 뿐이다. 통제 소재 연구에서 외적 통제는 개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우연 요소에 강조점이 있고, 정명관과 역명관에는 정해지는 운명과 만들거나 바꾸는 운명의 점지자가 존재한다는 가정이 있는 것이다. 또 내적 통제와 조명관은 약간의 상관만 존재할 뿐이다. 이 결과는 내적 통제로 설명할 수 있는 개인의 노력과 조명관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인의 노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운명 소비행동과 운명관/통제 소재의 관계(연구문제 3)

마지막으로 네 가지 유형의 운명관과 통제 소재가 운명 소비행동에 대한 설명변인으로 유용한

표 3. 운명관과 통제 소재간 상관관계

	역명관	조명관	유전결정관	정명관
통제 소재(단순상관)	-.300**	.222**	-.001	-.429**
통제 소재(부분상관)	.052	.103*	.060	-.296**

* P < .10, ** P < .01

표 4. 운명 소비행동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

	운명 소비경험		운명 소비의도	
	β	R ²	β	R ²
통제 소재	-.03		-.13*	.02**
역명관	.33**	.13**	.39**	.27**
조명관	.10		.06	.02**
유전결정관	-.11*	.01*	-.15**	
정명관	.07		.14	

* P < .05, ** P < .01

가를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운명 소비행동과 관련한 변수로는 응답자의 사주, 점, 궁합, 관상 등을 본 경험과 향후 소비 의도였다. 다중 공선성(multicolinearity)을 살펴본 결과,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를 살펴보면, 운명 소비행동(소비경험과 소비의도)에 대해 역명관의 설명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바탕한다면, 한국인의 운명 소비행동의 이면에는 운명을 바꾸고자 하거나 만들고자 하는 역명관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의 운명 소비행동은 단순히 자신이나 가족의 정해진 운명을 확인하기 위한 소비행동이 아닌 것이다. 운명 소비행동은 더욱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시도인 것이다.

논 의

본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했던 문제는 문헌 고찰을 통해 이론적으로 규정한 운명관의 내용과 구조에 대한 경험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구성 타당화, 변별타당화, 준거관련타당화)이었다. 먼저 문헌 고찰 결과에 바탕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요인분석을 한 결과, 한국인의 운명관은 역명관, 조명관, 유전결정관, 정명관(설명분산 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결과는 문헌 고찰 결과와 조금 다르다.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사고가 둘(유전결정, 정명)로 나뉜 것이다. 인간의 운명이 미리 정해진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음에도 운명을 정하는 주체가 유전이나 하늘(초자연적인 존재)이나, 정해진 운명에 대한 설명 가능성에 따라 둘로 나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인의 운명관에서 설명 분산이 가장 큰 요인은 역명관이었다. 즉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개인의 직/간접적 노력에 의해 변화 가능하다는 관점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일부 국내외 사회과학자들이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 가운데 하나로 지적하는 숙명론적 사고 또는 결정론적 사고와 다르다. 흔히 숙명론적 사고는 초자연적인 존재나 법칙에 의해 인간의 미래가 정해지고, 한번 정해진 운명은 인위적인 노력으로 바뀔 수 없다는 사고이다. 숙명론적 사고를 지닌 사람은 모든 문제에 매우 수동적이거나 방관하는 해결 태세를 갖게 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물론 역명관도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사고라는 점에서 숙명론, 결정론, 정명관과 가깝다. 하지만 역명관은 정해진 운명에 단순히 안주하지 않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인위적 노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체념적 숙명론과 다르다. 여기서 인위적인 노력이란 운명을 정하는 주체(주재자)를 움직이기 위한 노력(부적, 굿, 기도, 택일, 명당선택 등)이다. 이런 측면에서 역명관은 현재 부딪힌 문제에 대한 직접적 해결 방식이 아닌 간접적 문제 해결 방식으로 연결된다. 이때 간접적 문제 해결 방식은 눈앞의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초연한 자세를 취하는 현실 초월적이거나 심리 방어적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눈앞의 역경을 좌우하는 힘의 주체(운명 주재자)를 움직이려는 해결방식이다. 따라서 운명 주재자를 움직이려는 기복행동의 이면에 있는 운명관은 역명관이라 할 수 있다.

운명관의 네 요인과 통제 소재를 비교해보면 역명관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통제 소재와 운명관의 상관을 살펴보면, 외적 통제는 정명관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고, 내적 통제는 조명관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이론 고찰 부분에서 지적했듯이 어떤 사상(역경)을 유발하는 힘의 작용 규칙(무선적이나 아니나)을 어

떻게 지각하느냐 에서 차이가 있지만 외적 통제와 정명관은 상관이 있었다. 하지만 역명관은 통제 소재와 유의미한 상관(부분상관)이 없었다. 역명관은 정해지는 운명이라는 점에서 정명관과 공통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 통제 지각이나 외적 통제 지각과 관계가 없었다. 역명관은 개인의 통제 범위 밖에 있으면서도 외부의 힘만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닌 독특한 운명에 대한 신념이라 할 수 있다.

또 역명관은 운명 소비행동으로 이어진다. 운명 소비행동은 사주나 점, 관상 등을 통해 개인이 자신이나 가족의 정해진 운명을 알고자 하는 소비행동이다. 논리적으로 운명 소비행동은 미리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사고에 바탕하기 때문에 정명관과 역명관 둘 모두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운명 소비경험과 소비의도를 준거변수로 하고 운명관의 네 요인을 예측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운명 소비행동은 역명관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한국인의 운명 소비행동은 단순히 정해진 운명을 알기 위한 소비행동이 아님을 의미한다. 즉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지만 인위적인 노력으로 바꿀 수 있으며, 운명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의 정해진 그 운명, 미래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결국 한국인에게 운명 소비행동은 일상적인 문제 해결 방식 가운데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한국인은 해결하기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일 중심적인 노력을 하고 안되면 포기하거나 수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잘 되도록 조정한다고 생각하는 조정자에게 직접 호소하는 간접 통제 방식을 취한다. 그리고 이러한 간접적 문제 해결 방식은 운명 소비행동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인의 운명 소비행동에 내재한 운명관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명관의 내용과 구조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인의 문제 해결방식 또는 대처방식에 대한 실마리를 얻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으로 인해 본 연구결과의 해석이나 일반화에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본 연구 결과를 한국인 전체의 운명관에 대한 명확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과잉일반화의 우려가 있다. 물론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한국인이라는 전집의 일부이기에 한국인의 운명관에 대한 향후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지역적 특수성과 편파성을 가진 표본에서 나온 결과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이 운명관에 대한 척도 개발이 아닌 운명관의 구조에 대한 탐색이라 하더라도 운명관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 확보에 미흡했다는 점도 연구 결과의 해석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결과 부분에 모두 제시하지 않았지만, 운명관에 해당하는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초기 요인분석에서 각 문항의 공통분산, 요인 추출 후 각 요인별로 문항-총점 상관이나 내적합치도 등을 살펴본 결과, 운명관 구성문항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몇 문항을 수정하거나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대표적 표본을 추출하여 한국인의 운명 소비행동에 내재한 운명관에 대해 좀 더 신뢰롭고 타당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운명 소비행동의 선행 변수들 가운데 운명관에만 초점을 두었다. 한국인의 운명 소비행동, 나아가 일상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깊이있게 이해하고 설명, 예측하기 위해서는 운명 소비행동의 또 다른 선행 변수들, 운명 소비행동 이후의 대처행동, 운명관을 포함한 선행변수들과 대처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정환 (1998). 사주 점복의 카오스적 설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석진 (1995). 미래를 여는 주역. 서울 : 대유학당.
- 김철민 (1996). 한국인의 가치관과 소비행동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태곤 외 (1995). 한국의 점복. 서울 : 민속원.
- 김태길 (1982).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서울 : 문음사.
- 김홍철 (1995). 한국 점복신앙에 관한 연구. 한국 종교사 연구, 3집, p. 202-222, 한국 종교사학회.
- 서영대 (1994). 한국 점복의 연구. 한국 민속 연구사. 서울 : 지식 산업사.
- 신상춘 (1991). 사주가 운명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과의 관계 : 사주를 통한 다면적 인성진단을 위한 예비적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수성 (1995). 한국 무속의 심리학적 접근. 동양 사상과 심리학(임능빈 편집), p. 583-594. 서울 : 성원사.
- 윤태림 (1977). 한국인의 성격. 현대 교육 총서.
- 이규태 (1973). 민속에 나타난 남존 사상. 서울 : 한국 행동과학 연구소.
- 이정복 (1996). 역의 논리 서설 : HUSSERL의 현상에서 주역의 지평으로. 주역연구, 10, p. 63-86.
- 정재민 (1998). 한국 운명설화에 나타난 운명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차재호, 공정자, 김철수(1973). 내외통제적도 작성. 한국 행동과학 연구소 연구노우트, 제2권, 제19호, p. 263-271.
- 최상진 (1995). 한국인의 통제유형, 동양사상과 심리학(임능빈 편집), p. 535-543. 서울 : 성원사.
- 최영진 (1990). 주역의 음양대대적 논리와 중사상에 관한 연구. 민족 지성, 12, p. 217-228.
- 한규석 (1995). 사회 심리학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한덕웅 (1987). 조직행동의 동기이론. 서울 : 법문사.
- 한덕웅 (1994). 퇴계심리학 : 성격 및 사회심리학적 접근. 서울 : 성균관 대학교 출판부.
- 論語. 論語集註(朱熹).
- 孟子. 孟子集註(朱熹).
- 墨子. 세계의 대사상, 1983. 서울 : 철문출판사.
- 書經. 김관식 역, 1972. 서울 : 현암사.
- 列子. 조관희 역해, 1988. 서울 : 청아출판사.
- 南孝溫. 秋江集, 卷5. 민족문화추진회 편,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권16, 1988.
- 李珣. 栗谷全書, 拾遺 卷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국역 울곡전서(IV), 1996. 서울 : 조은문화사.
- 李瀾. 星湖僿說,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성호사설, 영인본, 1989. 서울 : 민문고.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s external control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 609.

Explanatory variable of fate consumption behavior: Content and structure of fate's orientation

Cheol-Min Ki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Mass Communication & Advertising, Kwangju Univ.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fate's orientation behind Korean consumption behavior to fate theoretically, empirically. As the result of literature review on this subject, Korean's orientations of fate were theoretically composed of belief to be determined fate(fatalism), to change and create fate. And psychological construct (locus of control) was used to understand fate's orientation comprehensively. Based on literature review, items were constructed.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showed the following. First, Korean's orientations of fate were divided into four factors. Besides three factors assumed new factor-belief to be determined fate hereditarily- was found. Second,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fate's orientations and locus control facilitated understanding Korean's orientations of fate. Finally, Belief to change fate among fate's orientations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Korean's fate consumption behaviors(consumption experience and intention).

keywords : fate's orientation, fate consumption behavior, fatalism, locus of control

부록 1. 운명관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문항	역명관 ($\alpha=.923$)	조명관 ($\alpha=.775$)	유연결정관 ($\alpha=.510$)	정명관 ($\alpha=.907$)	공통분산 (h^2)
부적은 행운을 만들어 낸다.	.773				.640
부적을 갖고 다니면 행운이 온다.	.766			-.326	.613
내 한 해의 운세는 토정비결을 보면 알 수 있다.	.696			-.560	.520
부적을 지니면 다가올 액운을 막을 수 있다.	.690			-.337	.489
나는 점괘를 믿는다.	.689			-.586	.524
굿을 하면 액운을 피할 수 있다.	.678			-.401	.475
사주를 보면 과거와 미래를 알 수 있다.	.669			-.462	.457
한 해의 운세가 좋지 않으면 각별히 조심한다.	.622		.311	-.577	.493
나는 관상을 믿는다.	.601			-.493	.411
이사나 결혼은 자신에게 좋다는 날에 해야한다.	.601			-.575	.478
하루의 운세는 오늘의 운세를 보면 알 수 있다.	.590		.375	-.383	.444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585			-.468	.373
명당에 묘를 쓰면 그 자손이 잘 된다.	.584			-.499	.444
오늘의 운세가 안 좋으면 그날은 매사에 조심한다.	.573		.312	-.523	.421
어떤 대학에 들어가거나 못 들어가는 것은 운명이다.	.563		.302	-.420	.375
내가 어떤 회사에 입사하고 못하고는 운명이다.	.544	-.334	.360	-.508	.451
기구한 팔자는 어찌해도 바꿀 수 없다.	.540	-.378		-.424	.394
손금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509			-.446	.295
내가 언제 어떤 병에 걸릴지는 다 정해져 있다.	.494	-.416		-.443	.386
손이나 발을 떨면 복이 달아난다.	.481			-.397	.264
나쁜 꿈을 꾸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480			-.419	.280
아들이나 딸이냐는 하늘(삼신할매)이 정한다.	.477			-.365	.255
자신의 앞날은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649			.442
자신의 운명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598			.371
타고난 팔자도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		.578			.340
정해진 운명도 바꿀 수 있다.		.573			.338
남에게 좋은 일은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다.		.492			.387
궁합이 안 좋아도 서로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366	.482		.360	.366
노력해서 안되는 일은 없다.		.472			.266
부모가 머리가 좋으면 자녀도 머리가 좋다.			.495		.268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465		.227
부모의 키가 크면 자녀의 키도 크다.			.408		.168
부모가 잘 생겼으면 잘 생긴 자녀를 낳는다.			.406		.173
온 정성을 다 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377		.225
자신의 복은 갖고 태어난다.	.456			-.743	.553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418			-.708	.523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 있다.	.396			-.697	.502
팔자에 맞는 직업이 있다.	.477		.367	-.644	.478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다 운명이다.	.418	-.328	.363	-.637	.498
좋은 날에 이사하면 액운을 막을 수 있다.	.562			-.625	.500
나는 사주팔자를 믿는다.	.577			-.616	.457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다 팔자 소관이다.	.389			-.610	.401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인복)은 타고나는 것이다.	.369			-.575	.360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해야 성공할 지는 미리 정해져 있다.	.426	-.356		-.549	.387
부자가 되려면 운은 타고나야 한다.	.425		.459	-.548	.432
자식을 못 낳는 것은 자식 복이 없기 때문이다.	.522		.343	-.523	.416
사람의 운은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분명하게 정해져있다.	.394			-.514	.296
사람의 수명은 미리 정해져있다.	.448			-.498	.324
천생연분은 있다.				-.486	.391
부유하거나 가난한 것은 하늘의 뜻이다.	.330	-.310	.467	-.485	.414
박복하게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밖에 없다.	.359	-.311		-.479	.310
궁합이 안 좋은 사람과는 잘 살 수 없다.	.424			-.434	.255
어떤 사람이 어렵게 사는 것은 다 팔자 때문이다.	.349	-.333		-.424	.283
오늘의 운세를 보면 하루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다.	.404			-.422	.225
부모가 심각한 병이 있으면 자식도 심각한 병에 걸린다.				-.285	.134
고유치	14.72	3.07	2.01	1.40	21.20
설명 분산(%)	26.75	5.58	3.65	2.54	38.53